

서울시 정보공개율 20% 급감

(10년간)

공개결정 불복 신청 2배 넘게 증가 “서울시 행정 투명성 높여야” 지적 시민의 정보주권 실현 취지 무색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서울시

연도	청구건수	처리현황(건)				기타취하 등 (건)	공개율(%)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9	18881	10591	6388	3675	528	8290	60.3
2014	6327	3617	2944	537	136	2710	81.4
2013	5367	3263	2781	411	71	2104	85.2
2012	9133	3387	2955	348	84	5746	87.2
2011	5077	2652	2153	232	267	2425	81.2
2010	3746	2369	1883	217	269	1377	79.5

열린 시정을 표방하는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지난 10년간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이 2배 넘게 증가해 서울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10년 3746건에서 2019년 1만8881건으로 5.04배 증가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 제도를 법제화했다. 시는 지난 2000년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행정정보를 주인인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의 정보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무색하게 최근 10년간 정보공개율은 19.2% 감소했다.

전체 청구 건수 중 기타 취하된 사례를 제외한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 총 2369건 중 1883건이 전부 공개돼 정보공개율은 79.5%였다. 이는 2011년 81.2%에서 2012년 87.2%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3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에는 1만591건 중 6388건만이 전부 공개돼 정보공개율이 60.3%에 그쳤다. 서울시는 10년 전보다 정보공개에 인색해졌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개인들의 정치·사회적 성향이 진보일수록, 고위관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내적·외적 정치효능감이 낮을수록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비공개 건수는 2010년 2699건에서 2019년 5283건으로 2배 폭증했다. 지난해 비공개 결정의 주

요 사유로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가 45.5%로 가장 많았다. 개인 사생활 침해(17.6%),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15.7%), 재판 관련 정보(8%), 법령상 비밀·비공개(7.2%)가 뒤를 이었다.

시가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불복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나 부분공개에 불복할 경우 해당 부서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의 정보공개 불복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2010년 각각 77건, 0건, 0건에서 2019년 155건, 17건, 5건으로 늘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양재수소충전소, 하루 충전 60대로 확대

서울시, 내년부터 정상운영

나 설비 고장으로 올해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서초구 소재 ‘양재수소충전소’의 용량을 증설해 하루 충전 가능 대수를 현재의 2.5배인 60대로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에 시설개선 공사에 착수해 연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양재·상암·강동상일·국회 등 4곳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양재충전소는 2010년 9월에 세워졌으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수소차가 1185대 보급돼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에 135대(11.4%)로 가장 많다.

서울시는 시설개선을 앞두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6일 오후 8시 시청본관 서울온(지하2층)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화상으로 참여할 서초구민 90명을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현정 기자

위기의 MICE 산업 ‘온라인화’ 돕는다

서울시, 온·오프라인 결합형태 확대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또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인 온라인 행사에는 그동안 오프라인 행사 비용 지원금(최대 2억원·평균 2000만원)의 80% 수준을 지급한다.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열면 지원금을 기존 금액의 120%까지 늘려 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대면 모임 중심인 MICE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 예정된 행사 90%가 전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시는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MICE 행사의 온라인화를 전면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프라인 행사 중심이었던 지원 정책을 온라인과 온·오프라인 결합 형태로 확대한다.

우선 하반기부터 행사 유치를 위한 컨설팅부터 참가자 모집을 위한 해외 홍보, 웹 세미나, 가상전시 플랫폼 구축

글로벌 행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나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 기획안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32개 전시·기획안을 선정했다.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방역 게이트, 안전인식 체온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전문 위생·방역 서비스 등 방역 인프라를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안내서도 제작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참가자에게는 안심보험 가입과 24시간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 도심 ‘움직이는 공원’ 조성 확대

시민들에 일상의 휴식·위안 제공 도심 열섬현상 완화·미세먼지 ↓ 작년 10개 이어 올해 6개 추가 설치



움직이는 공원 조성 후 모습(금천구 말미사거리).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일상의 작은 휴식과 위안을 주기 위해 이동 가능한 화분에 나무(교목, 관목)와 초화류(화훼식물)를 심어 ‘움직이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움직이는 공원은 장소 제약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원서비스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앞, 보도, 광장, 공터 등 인구 유동량이 많지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때문에 나무를 직접 심거나 심을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다양한 장소에 녹지 공간을 선보일 수 있다.

시는 움직이는 공원을 통해 ▲그늘 쉼터 제공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감소 ▲도심경관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해 10개에 이어 올해 6개의

움직이는 공원을 추가로 설치했다. 작년에는 광화문광장, 서울광장과 같은 도심을 중심으로 설치했다면 이번에는 버스환승센터, 지하철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공원을 뒀다.

올해 움직이는 공원이 생기는 곳은 ▲성북구 정릉동 966보도 앞(길음뉴타운 10단지 아파트 앞) ▲율현공원(강남구 밤곡로 21길91) ▲은평구 DMC역 앞 ▲은평구 수색역 앞 ▲구로구 신도

림테크노공원 앞 버스환승구역 ▲금천구 말미사거리 앞 광장(독산동 1008-1) 총 6곳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광장, 도로변 공터를 비롯한 도심 내 소규모 공간에 다양한 테마의 공원을 배달할 것”이라며 “움직이는 공원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관광공, 한국 문화 알릴 ‘K프렌즈’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홍보를 위한 대규모 온라인 서포터스 ‘K프렌즈’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비대면 홍보활동을 통해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켜 향후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올해 1만명, 2023년까지 5만명, 2025년까지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프렌즈 회원들은 공사 32개 해외지사 중 1개 지사의 매칭을 통해 각 지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를 자신의 SNS로 공유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공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외에 회원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사는 회원들에게 온라인 임명장과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가입자 중 선착순 1만명에게 ‘웰컴키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인센티브

8월까지 2500여명 반납

고양시는 운전면허자진반납 지원사업에 참여한 고령운전자 2500여 명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사업이 시작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25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2020년 들어 고령운전자의 자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는 8월까지 2000여 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는데, 올해 참여자는 월평균 100% 증가한 셈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0월 20일 (화)

음력 : 9월 4일

수도권 날씨

10 ~ 2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5/21

동두천 6/22

가평 5/21

파주 5/21

서울 10/22

양평 7/21

용인 11/21

수원 11/21

인천 11/20

백령도 14/19

평택 7/2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